

QR코드 운송장

신지윤 유은지 임서영

A Table of Contents LEM 인식

- ▲ QR 코드란?
- ▲ 적용

16억 2천만개

(2015년 택배 물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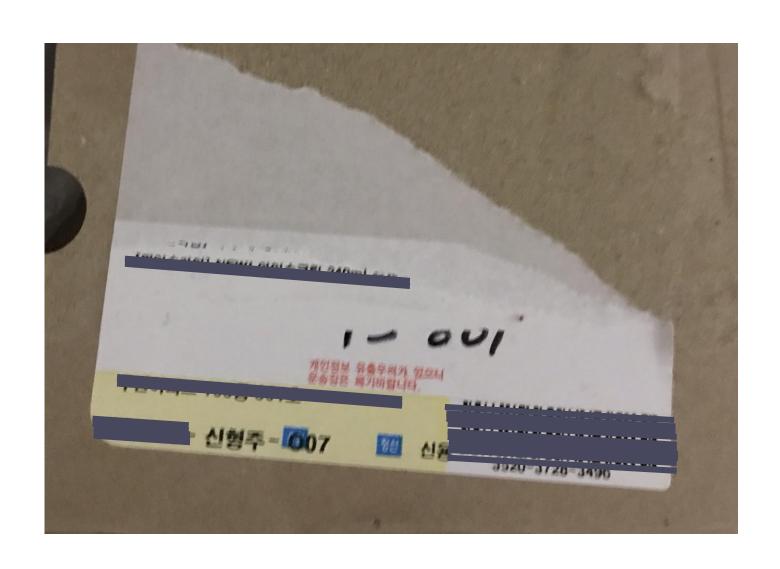
전화번호 이용한 스미싱, 보이스피싱 주소 택배배달원 사칭한 강도 범죄 빈집털이

택배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문제 제기해택배 서비스 기업들 대책 내놓았지만, 일부 정보 가리기에 급급



송/수신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인 개인정보, 보내는 물품의 종류, 운송장 번호

인쇄되어 나오는 운송장의 경우 부분적으로 '*' 사용해 가렸지만, 수기 운송장은 모든 정보 노출



뭉치로 나뒹구는 택배 운송장...개인정보 '줄

최우철 기자 justrue1@sbs.co.kr 작성 2019.09.12 07:39 수정 2019.09.12 08:26 조회 1,445

고객 정보가 담긴 택배 기사용 운송장이 박스째 버려지는 현장, 고발합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배송 물품이 물리면서 분류에서부터 차에 신는 작업까지 온종일 분주합니다.

택배 물품 분류작업이 끝난 오후, 집하장에 들어가 봤습니다.

작업장 뒤쪽 후미진 곳에 쓰레기 더미와 함께 종이 상자 10여 개가 버려져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봤더니 운송장 용치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인터넷 쇼핑 상품의 경우 물품 정보까지 자세히 쓰여 있습니다.

[속옷 같은 건 품목이 나오거든요. 사이즈-색깔...이런 거는 딱, 여자 것이란 게 나오고 (유출되면) 문제가 엄청날 수 5

운송장들엔 지난 반 년간 인천의 한 자치구에 배송한 기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또 여자만 사는지, 연령대는 어느 정도인지 주정 가능한 정보입니다.

운송장을 본사가 거둬 폐기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엔 기사에게 관리를 맡기는 회사가 많습니다.

[김모 씨/택배기사 : (배송을) 확인한 다음엔 (아파트) 경비실 쓰레기통 같은데 테리고... 고객정보유출과 관련해선 어 게 버리라는 지침 자체가 없어요. (본사가) 그만한 돈을 투자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배 회사는 기사 교육을 철저히 한다지만 개인정보가 담긴, 그래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운송장은 뭉치 째 아무랑 나 나뒹굴고 있습니다.

[소셜스토리]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아직도 샌다

기사립역 2018.04.22. 오루 2:05 기사원단 스크램 🚱 본문동기 · 성정

가 요 앱

✓ PICK



그냥 버렸다간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도

라이브, 스토리, 비하인드LITEC 소설스토리

몇 년 전부터 택배 운송장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 핑몰과 택배회사들은 일회용 가상번호를 사용하는 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름의 일부를 가리는 등 나름의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과연 요즘은 안심해도 괜찮

택배 운송장은 크게 품목관, 고객용 정보관, 배달프로 구성됩니다. 그 중 배달표에 전히 택배 수신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택배기사의 배송을 돕기 위해서죠. 문제는 배송 완료 후 모든 배달표가 제대로 수거되는 건 아니

특히 요즘 1인 가구가 많아져 택배를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름, 주소 화번호까지 담긴 택배 운송장이 집 밖에 방치되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 개인정보만 조합해도 온라인으로 쉽게 신상과 사생활을 캐낼 수 있기 때문입니 제로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가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약용되고 있습

2016년부터 '택배 실명제'를 실행한 중국에서는 택배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해지자, 최근 삼자에 개인정보 없이 바코드만 붙이는 택배사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단말기를 가진 택배기사들만 고객의 정보를 볼 수 있게 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택배상자를 버릴 때는 운송장을 꼭 떼어내야 합니 으로 찢는 것이 불편하다면 물파스나 아세돈을 발라 글자글 지울 수 있습니다. 가정 서파쇄기나 보안용 도장 등을 구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작:김지훈 주혜령)

김기줌(kim.kijoong@tbc.co.kr)

≡ 세계일보

버려진 택배 상자 살펴보니…당신의 '전화번호'가 있네…

해드라인

버려진 택배 상자 살펴보니…당신의 '전화번호'가 있 네요?

송장이 붙은 채로 버려진 택배 상자들이 발견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 근처에 상자 수십개가 쌓여 있었다.

입력: 2018-09-26 08:00:00 수정: 2018-09-24 12:08:49 가 가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고스란히… 택배운송장 개인정보 유출 '비

f 📴 🕮 C

검찰 • 법원 노동・복지 환경 • 날씨

사회

일반

교통・항공 교육·학교 사건사고

> 아파트 동·호수는 기본에 휴대전화 번호도 남아서 마음만 먹으면 범죄에 악용할 수도 있었다. 실제 로 기자가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상자를 살피며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동안 수상하게 여기거나 제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 추석을 앞두고 각종 선물을 택배로 보내는 이들이 많아진 가운데, 이름주소 전화번호가 인쇄된 운

세계일보가 최근 추석을 앞두고 서울 마포구 아파트 단지 3곳을 돌며 관찰한 결과, 2곳에서 택배 운

송장이 붙은 상자 여러 개가 발견됐다. 때마침 해당 아파트들은 재활용품 배출일이어서 단지 출입



手記로 작성하면 암호화 안돼

택배 발송 시 운송장을 수기(手記)로 작성하 면 이름주소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그대 로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택배 업체가 신상 정보 일부를 암호화하거나 안심 번호를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발신인이 운송장

을 전산으로 작성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

coupang 돌아오지 않는

품절 전 구매하기 >

coupang 오늘주문!내일도착!로켓배송

이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아 택배 기사를 불러 손글씨로 운송장을 쓰는 노인들의 경 우, 발신인인 자신과 택배를 받는 자녀들의 개인정보까지 고스란히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김모(30) 씨는 지난달 26일 퇴근 후 자신에게 온 택배를 보관함에서 발견하고는 두 눈을 의심했다. 김 씨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가 수기로 작성된 운송장이 택배에 그대로 부착돼 있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1일 "지방 에 사는 부모님이 생필품 등을 보내는 일이 많은데, 인터넷에 익숙지 않아 매번 택배 기사를 불러 직접 운송장을 작성한다"며 "전산 운송장은 개인정보가 암호화된다는데, 손으로 썼다고 신상정보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동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박모(27) 씨도 "오피스텔 주민 대부분이 1인 가 구라 택배를 직접 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며 "오가는 사람이 많은 장소에 수기 송장이





QR 코드를 이용해 운송장의 개인정보를 일반인이 식별할 수 없게 하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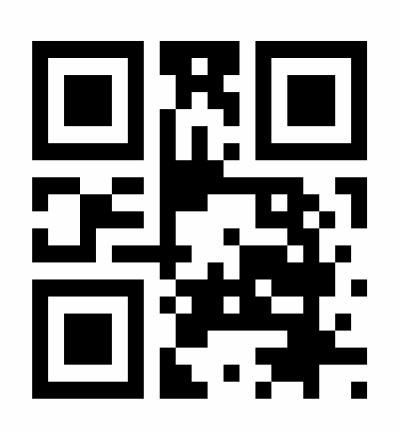
QR 코드란?



QR: Quick Respo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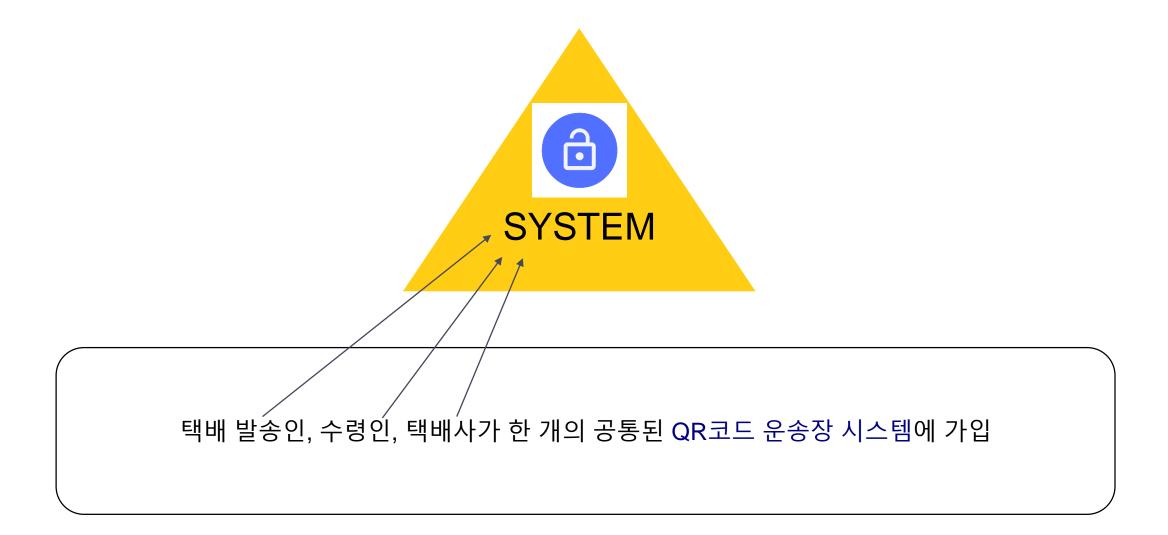
- ✓ 흑백 격자무늬 패턴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매 트릭스 형식의 이차원 바코드
- ✓ 2차원 형태로 1차원(바코드)보다 더 많은 정 보를 저장 가능
- ✓ 약간의 훼손 시에도 사용 가능

해결 도출



QR 코드에 택배 수령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내용물 종류 등 개인정보 담아 전달

METHOD



수령인이 수령 확인 버튼 누르는 동시에 METHOD QR코드 파기 로그인 후 발송하는 QR코드에 수령인의 상품의 정보와 수령 개인정보 담아 인 개인정보 입력 전달 6 택배 택배사 발송인 SISIE 로그인 & 본인 식별 후 로그인통해 운송장 인식 가능 택배 위치 조회 및 서비스 이용 택배 택배 수령인 기사님

SECURITY





장점과 단점

장점

- 큐알코드라 약간의 훼손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 운송장을 따로 안 버려도 된다
-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낮아짐

단점

- 택배를 받자마자 자신의 물건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큐알코드로 찍 은 후 확인가능)
- 생체인식을 위해 지문이나 홍채를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Q&A

l 자료 출처 l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978190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67823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80924000745?OutUrl=naver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60101071409315001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QR_%EC%BD%94%EB%93%9C

두산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354138&cid=40942&categoryId=32828

RISS: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 mat type=be54d9b8bc7cdb09&control no=

506c72fb0fcd36c9ffe0bdc3ef48d419&outLink=K#redirect

THANK YOU